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무역협약 실패 국가에는 8월부터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집중. 현행 금리는 적절한 수준
 - 중국, EU産 의료기기 제재 확대. 프랑스는 對중국 관세 장벽 강화 주장
 - 일본 총리, 지속적으로 미국에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 OPEC+는 중산 합의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트럼프 감세법안 최종 가결, 양호한 6월 고용지표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7%], 달러화 약세[-0.2%],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베트남과의 무역협약, 경제 낙관론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난항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등으로 감세법안 통과에 따른 재정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으로 상승
독일은 영국의 재정 불안 심화 가능성 등이 반영되며 2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0.36% 상승, 한국 CDS 약보합

		7/4일	6/27일	전주말대비			7/4일	6/2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휴장	6,173.1	+1.72%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4.28%	+7bp
	유럽	541.13	543.63	-0.46%		독일	2.61%	2.59%	+2bp
	중국	3,472.3	3,424.2	+1.40%		영국	4.55%	4.50%	+5bp
	일본	39,811	40,151	-0.85%	CDS 5y	한국	26bp	26bp	-0bp
	한국	3,054.3	3,055.9	-0.05%		중국	48bp	51bp	-3bp
환율	달러지수	97.18	97.40	-0.23%	위험 지표	EMBI+	휴장	371bp	-17bp
	유로화	1.1778	1.1718	+0.51%		VIX	17.48	16.32	+7.11%
	엔화	144.47	144.65	+0.12%		WTI유	휴장	65.52	+2.26%
	위안화	7.1656	7.1726	+0.10%	원자재	구리	휴장	506.9	+0.56%
	원화	1,362.3	1,357.4	-0.36%		금	3,337.2	3,274.3	+1.9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미국 주가, 국채금리, EMBI+, WTI, 구리 가격은 7월 3일 기준으로 전주말 대비 작성됨.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무역합의 실패 국가에는 8월부터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 7/9일 고율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국가들은 8/1일부터 4월에 발표했던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언. 또한 행정부는 교역 비중이 크지 않은 100개의 작은 국가에도 서한을 발송하여 고율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첨언
- 이에 따라 근시일 내에 많은 무역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국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 한편 합의 기한이 8월로 연기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새로운 기한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 때부터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라고 설명
- 아울러 현재는 18개 주요 교역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전히 지연이 많지만, 몇몇 주요 협정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마감 시한 전에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분석
- 일례로 그 동안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인도는 7/5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을 어겼으며 보복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전환. 특히 미국이 수입차 및 수입 부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가 자국의 對美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한편,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백악관의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은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경우 합의 관련 일정을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또한 유예 조치 연장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말레이시아태국에 AI 반도체 수출 제한 검토.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 고려

- 상무부는 AI 반도체가 우회하여 중국에 수출되는 방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검토. 한편,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행된, 전세계 대상의 AI 수출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공식 해제할 전망. 다만, 중국 등 40여 개국에 대한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

■ BofA, 미국 증시의 버블 가능성을 경고. S&P500지수는 6,300에서 매도 권고

- 마이클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 의회의 트럼프 감세법안 가결로 금년 여름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특히 S&P500지수가 6,300을 넘어서면 투자자에게 매도를 권고할 것이라고 첨언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집중. 현행 금리는 적절한 수준

- 라가르드 총재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향후 금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 금리가 적절한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견해를 피력

■ 중국, EU産 의료기기에 대한 제재 확대. 프랑스는 중국에 관세 장벽 강화 주장

- 중국 재정부는 자국 공공부문 시장에서 유럽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이는 EU가 6월에 중국 의료기기 기업의 역내 수입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결과. 프랑스 롬바르도 재무장관은 철강 및 자동 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으로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영국 재무장관, 증세를 통한 재원 확대 필요. 복지예산 삭감 철회 등을 고려

- 리브스 장관은 이전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복지예산 삭감 철회로 인한 재원 부족을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재정규율 준수를 강조하는 리브스 장관의 재신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평가 등으로 주요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

■ 일본 총리, 지속적으로 미국에 자동차 관세 철회 요구. OPEC+는 증산 합의

-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설픈 형태의 타협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또한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철회 요구는 협상 과정에서 계속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
- 한편 OPEC+는 일일 54.8만배럴 증산하기로 결정. 감산 축소를 통해 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결과는 시장의 예상(일일 41.1만배럴)을 상회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소비자신용, 유로존 5월 소매판매 및 7월 섀틱스 투자자신회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금융시장 투자자, 트럼프發 불확실성의 경제 영향 시각은 다양 - WSI

(Investors Come Around to Trump's Uncertainty)

-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은 투자에 부정적이나, 금년에는 오히려 긍정적. 트럼프의 관세 및 외교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방어적 지출 증가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 실제로 유럽 주가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확대 기대에 급등했고, 미국은 기업의 관세 부과 전 수입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며 주가가 반등
- 다만,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있다는 낙관론 ▲달러화 약세 등 일부만 여파가 나타났다는 중립적 시각, ▲실물경제 충격이 시치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경계론이 공존. 강세론자들은 현재의 기업 수익성과 소비 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나 약세론자들은 취약한 신뢰지표가 결국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트럼프의 신속하고 급진적인 정책 추진, 정치적 승리보다 후폭풍이 문제 - 블룸버그

(Trump's Fast and Furious Second Term Racks Up Wins — and Risks)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 남부 국경 폐쇄, 대외 전쟁 개입, 교육정책, 예산안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수행. 특히 의회의 감세법안 승인은 스스로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 하지만, 너무 빠른 정책 추진은 다음 이유로 상당한 후유증 동반될 소지.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을 초래하며 자국 경제를 위협
- 국경 단속은 접객업과 농업 등 이민자 의존도 높은 산업에 치명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실패, 러시아 외교 교착상태는 지정학적 위험 가중 유발. 감세법안은 국가 부채 급증, 빈부 격차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 특히 행정권 확대의 일환인 연준 의장 조기 지명은 연준 독립성을 저해하며 채권시장 혼란 유도할 우려

■ 재정 과잉의 시대, 각 정부는 부채 문제의 심각성 인식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age of fiscal excess)

- 미국은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로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가 3조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 일본은 각 정당이 현금 지원과 판매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참의원 선거전 돌입.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 증액에 합의. 이처럼 주요국 부채는 더욱 확대
- 그러나 고금리 신규 차입, 무역전쟁 및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로 부채 부담 축소를 위한 정부 노력은 부재. 아울러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둔화 및 연금과 의료비 부담 가중 등으로 부채 우려가 증폭. 이에 각국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용 절감 속 성장 촉진의 난제 해결 모색이 요구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WTO의 재결속 의지 충돌, 향후 글로벌 무역체제를 좌우 - 블룸버그**
(What Comes After the Trade War?)
 - 전문가들은 트럼프 퇴임 후 글로벌 무역체제가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속 여부와 세계 각국의 WTO 체제 복귀 등 2개의 요인에 의해 결정. 첫째, 미국과 세계 각국이 다자주의에 동참하는 경우. 이는 가장 이상적이나 미국의 탈다자주의 경향은 트럼프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가능성이 제한적
 - 둘째, 전세계 각국은 다자주의를 유지하나 미국만 이탈. 셋째, 미국이 WTO 외 G7 체제로 무역 협상에 참여하는 등 지정학적 블록 형성. 넷째, 미국과 전세계가 모두 다자주의 이탈. 이 경우에는 무역 질서가 EU+, BRICS+, 미국 등 3개 블록으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소지
- **미국 트럼프의 재정 우위 추구,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험 초래할 소지 - WSJ**
(Trump's 'Fiscal Dominance' Play)
- **미국 트럼프 관세 유예 종료 임박,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투자자 우려 제한적 - Reuters**
(Investors head into Trump tariff deadline benumbed and blasé)
- **미국 고금리 적용 주택 구매자, 저금리 재융자 경로 부재 등으로 어려움 직면 - WSJ**
(Homeowners Who Gambled on Lower Rates Are Paying the Price)
- **주요국의 방만 재정, 경우에 따라 주식 자경단의 적극적 개입도 요구 - Financial Times**
(All hail the equity vigilan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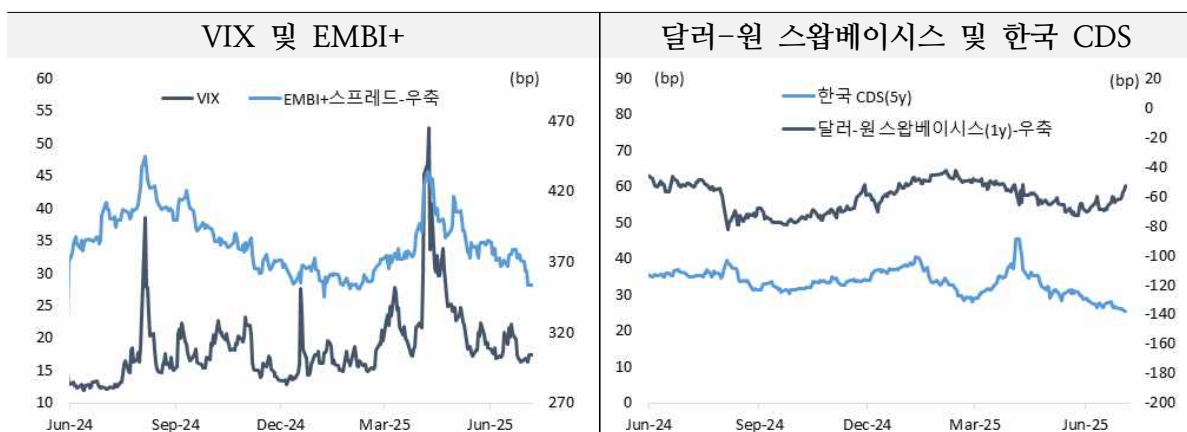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